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2(土)	13(日)
구름조금 24 / 33℃	구름조금 24 / 32℃

**News**

- 기아차 파업 1881억 손실 ②
- 여고생 35명 집단 설사 ③
- 광주 버스터미널의 변신 ④
- 추신수, 이틀 연속 3안타 ⑧

**Entertainment**

- 라디오가 진화 한다 ⑧
- 화제작 '우리들의 행복' ⑨

**Books**

- 한재미의 화가 집 찾아서 ⑩
- 코엘료의 산티아고 순례 ⑪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생강 ⑬

**Sports**

- 이세돌 국내 무관恨 풀어 ⑮
- 광주체육 '미래의 요정들' ⑮

## “별 볼일 있는 사람들 참 많네”

### 문 연지 한달...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

“백조, 거문고(지너), 독수리(견우)자리...이 세 별자리를 연결해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도심에서는 볼별 더위가 땀을 떨치고 있는 지난 9일 밤 9시,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 관측실에는 30여명의 관람객들이 천문과학관 연구사인 조유미(26)씨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는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별자리 이야기에 이어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을 이용해 보름달과 목성, 백조자리 녹색과 노란색 별이 나란히 있는 이중성 알비레오(백조자리의 별) 같은 별들을 관측하노라니 여름 밤은 노루꼬리처럼 짧게 지나간다.

**“저 꿈 바꿨어요! 천문학자로”**

“별이 너무 예뻐요. 망원경으로 가까이 보니까 정말 색다른 느낌이예요.”(권정민·수원 영일초등 4년) “목성 4개 위성과 달의 크레이터(분화구)가 특히 귀여워요.”(정진민·담양 한재초등 6년)

“책으로만 알고 있던 우주의 모습을 실제 보게 돼 생동감 있고 좋아요. 계속 별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박지민·광주교대 목포부설 초등 5년)

관측은 어린이만의 몫이 아니다. 휴가를 맞아 고향이자 처가인

장흥을 찾은 강상수(29·미국 워싱턴주)씨는 “밤하늘 빛나는 별을 보니 어렸을 때 꿈이 새록 새록 떠오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문을 연 장흥군 여불산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은 하루 평균 200여명, 주말 400여명 등 개관 한 달 동안 5천여명이 찾은 명소가 됐다.

**한달새 5천명 발걸음...새 명소로**

천문투영실에서 별자리를 설명하던 이정화 연구사(30)는 “휴가와 피서철을 맞아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많은 것을 설명하고 싶어도 다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천문투영실은 관람객이 의자에 편히 누운 채 8m 등근 천정 돔을 바라보면 그 시간대의 밤하늘이 투영되며 백조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등 여름철 별자리를 익히고 삼별성운, 석호성운을 여행한다. 그리고 원홀(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잠미성운을 탐험하는 3D화면이 박진감 넘치게 상영된다.

조국선(43) 천문과학 담당 계장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리 아이 꿈이 경찰관에서 천문학자로 바뀌었다’며 감사의 글을 남긴 어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천문과학관 개방 시간은 오후 2시~밤 10시. 당일 관측가능 여부는 천문과학관 홈페이지(star.jang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안희정·신계륜·여택수 씨 등 142명 사면·복권

### 국무회의 광복절특사 의결 752명 가석방·권노갑씨 감형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 된다.

정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반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정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원길 의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형선고와 실효되면서 포함됐다.

당 대표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합소실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나라중금 사건에 연루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또 “여야 등 소속 정당 구분없이 동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면을 결정하고, 16대 대선자금 문제는 임기 중 마무리 짓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대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150억원이 확정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건강 상태를 감안해 특별 감형됐고,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도 고령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752명을 가석방했고 건설업체 4천441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사, 감리원, 건축사 등 4천390명의 처분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 영국발 미국행 여객기 공중폭파 음모 적발 인천공항 등 보안검색 강화

### ‘관심’서 ‘주의’로 격상 액체·젤류 반입 금지

항공안전본부는 영국 여객기 공중 폭파 음모와 관련, 11일 낮 12시를 기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보안단계를 ‘블루’(관심)에서 ‘옐로우’(주의)로 한단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이에 앞서 10일 오후 6시 ‘그린’(정상)에서 블루로 강화했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보안단계가 두 단계나 격상된 것이다.

본부는 “이번 조치는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후속 범행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공 보안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미국과 유럽 등 국제선을 운항하는 인천과 김해공항에 대해 보안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서 전체 승객 중 10%의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해 X-레이나 금속탐지기 검색과 함께 개봉 검색을 할 것이라고 본부는 전했다.

한편 영국경찰청은 10일(현지시간) 영국발 미국행 여객기 여러 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폭파 하려던 테러 음모 적발, 용의자 2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공립대학 장학(도산) 기금 지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생명보험 02-970-0111 / 02-970-0000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생원보험 0285-0001 / 0285-360-3000

세계스타·세기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롭게 두뇌개발 개념으로  
새기어 첨단보청기 기술의 선두주자

#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